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18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 캠페인 -1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감귤 가격 하락에 제값받기 협력 방안 논의-3면	-	제주일보
○	‘성큼 다가온 겨울’…대설·한파 종합대책 본격 가동-5면	-	삼다일보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더딘 출발’ -3면	-	한라일보
○	잦은 비에 콩·감귤 등 농작물 피해 ‘비상’ -6면	-	한라일보

(제주매일: 2026년 11월 18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 캠페인-12면



동부농기센터, 농작업 안전 캠페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최근 동부지역 품목농업인연구회 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교육과 안전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11. 18.
제주매일 12

(제주일보: 2026년 11월 18일)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 △

일시=11월 19일(목)~11월 23일(월)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11. 18.
제주일보 9

(삼다일보: 2026년 11월 18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기간=11월 19일(목)~23일(월)/5일간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참가 인원=6만5000명 내외 △행사성격=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문의=762-3091(㈔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32-3380(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

11. 18.
삼다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11월 18일)

○ 감귤 가격 하락에 제값받기 협력 방안 논의-3면

감귤 가격 하락에 제값받기 협력 방안 논의

제주시, 구리도매시장서 유통 실태 점검·감귤 우수성 홍보 나서

이상봉 제주시장은 노지감귤 본격 출하 시기를 맞아 17일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 감귤의 유통 실태와 거래 가격을 점검하고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감귤과 양배추, 당근, 월동무 등 연간 3만톤, 약 700억 규모의 제주산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이상봉 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날 새벽 경매 참관에 앞서 경매사 등 도매시장 관계자들과 감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중도매인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소비지 도매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주 감귤의 [illegible]과 상품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주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고 품질의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17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 감귤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한편 17일 기준 전국 9대 도매시장에서 5kg 한 상자 당 노지감귤 평균 도매가격은 1만1200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00원과 비교해 6%(700원) 낮은 수준이다.

좌동철 기자

11. 18.
제주일보 3

(삼다일보: 2026년 11월 18일)

○ '성큼 다가온 겨울'…대설·한파 종합대책 본격 가동-5면

'성큼 다가온 겨울'…대설·한파 종합대책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겨울철 대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본격적인 대응체계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선제적 도로제설, 취약계층 보호, 농·수·축산시설 피해 예방 등 분야별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illegible]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또 관계 부서와 읍·면·동 간 비상 소통체계를 통해 기상특보와 현장상황을 신속히 공유한다.

도로제설을 위해서는 제설차량 55대와 제설장비 72대를 확보하고, 염화칼슘 334톤과 소금 95톤 등 제설 자재를 비축했다. 한파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쉼터 218개소와 온열의자·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 191개를 운영한다. 혼자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및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설·한파 예보 시 농·수·축산업 종사자에게 기상정보와 시설물 관리요령을 신속히 전파한다. 아울러 수도시설 동파에 대비한 긴급복구반을 운영하면서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해 제설장비와 자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분야별 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samdailbo.com

11. 18.
삼다일보 5

(한라일보: 2026년 11월 18일)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더딘 출발' -3면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더딘 출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시범운영 돌입… 초기 입고 저조
입고율 5.5% 수준… 보관 물량 확보·공정 배분 과제

제주지역 제조기업과 농수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성된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초기 입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지난 13일부터 물품 보관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 운영은 공공기관 대행사업 방식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맡고 있다.

진흥원은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 [illegible]일부터 센터 보관 공간을 이용할 [illegible]에 나섰다. 전체 보관 규모는 1800팔레트로, 상온 1400팔레트와 냉장·냉동 400팔레트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물량 입고가 시작됐음에도 모집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입고량은 15개 업체가 맡긴 물품 등 약 100팔레트에 그치고 있다. 전체 보관 규모인 1800팔레트의 약 5.5% 수준이다.

다만 최근 본격적인 입고가 시작됐고 업체마다 입고 시점과 물량이 다른 만큼 실제 보관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전체 보관 규모의 약 60%에 해당하는 물량이 입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100~200팔레트 규모의 보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운영에 앞서 일부 기업의 보관 공간 독점과 저온창고 이용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체별 보관량 상한과 품목군별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섬 지역이라는 특성상 농수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 구조에 따라 특정 품목에 보관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보관 공간이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만큼 주요 농수축산물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려는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공업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감귤, 돼지 등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품목별 쿼터제로 인해 해당 품목을 맡기려는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면서 "생산량 등을 고려해 품목별 보관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정식 개소에 앞서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업체별로 물량 입고 시기와 규모가 다른 데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관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정 품목에 물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토대로 쿼터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물량이 증가할 경우 보관 공간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1. 18.
한라일보 3

(한라일보: 2026년 11월 18일)

○ 잦은 비에 콩·감귤 등 농작물 피해 '비상' -6면

잦은 비에 콩·감귤 등 농작물 피해 '비상'

한 달 새 제주 20일·서귀포 17일 비… 강수량도 급증
수확 늦어진 콩에 곰팡이병…농가 "농업재해 인정을"
감귤도 나무에서 썩는 수부증 증가하며 상품성 저하

한창 수확철을 맞은 제주 감귤과 콩나물용 콩이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걸러 비가 내리는 등 잦은 강우로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콩은 예년 같으면 지금쯤이면 수확이 마무리됐을 시기지만, 올해는 비로 수확이 지연되는 사이 콩 꼬투리(콩깍지)에 곰팡이병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폐작 위기에 놓였다. 이에 콩 재배 농가들은 정부에 비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농협제주본부와 콩 주산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콩나물용 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제주지역의 올해 콩 재배면적 4229㏊ 가운데 현재까지 수확을 마친 면적은 약 30%에 그치고 있다. 예년 같으면 10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해 늦어도 11월 초순까지 마무리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각각 20일, 17일이다. 강수량은 제주시 306.6㎜, 서귀포시 353.5㎜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10월 16일~11월 16일)과 서귀포시 지역에 각각 11.18. 한라일보 6 내렸고, 강수량도 57.0㎜와 34.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강우 빈도와 양이 크게 늘었다.

콩은 비가 그친 뒤에도 하루 이틀 정도 건조한 후 수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콩이 마를 새도 없이 비가 내리면서 미수확 콩의 꼬투리에 곰팡이가 빠르게 번지며 검게 썩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콩 꼬투리 안에서 콩알이 싹을 틔우는 수발아 현상까지 나타나 미수확 포전은 사실상 폐작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콩나물용으로 사용할 상품용 콩은 평년의 20~3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군진 한경농협조합장은 "아직 수확하지 못한 콩밭에서는 과습으로 곰팡이병이 빠르게 번지고 수발아까지 확인됐는데, 이번주도 계속 비날씨가 예보되면서 사실상 폐작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반드시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열 안덕농협조합장은 "지난해에는 콩 상품을 40㎏ 기준 2만 500가마를 매입했는데, 올해는 5000가마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올해 도내 콩 재배면적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면적은 2058ha로, 면적 기준 가입률은 48.7%로 확인됐다.



최근 한 달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각각 20일, 17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수확기를 맞은 콩나물용 콩에 곰팡이병이 번지고, 감귤이 나무에서 썩는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콩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의 약 70%에서 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확이 한창인 감귤도 잦은 비로 나무에서 감귤이 썩어 떨어지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극조생 감귤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고 조생감귤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시기인데, 잦은 비로 수확이 늦어지고, 과습으로 감귤 열매가 나무에 달린 채 썩는 수부증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확한 감귤을 도매시장에 출하했을 때 이맘때 반품되는 비율이 예년에는 5%가 채 안됐는데, 올해는 20%에 가까울 적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미숙기자